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자동차 등록 매뉴얼 제작

정읍시가 자동차 등록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 중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활필수품이지만 자동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자동차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민원은 대부분 처리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사 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차 등록 매뉴얼 제작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자동차 관련 업체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뉴얼이 자동차 관리의 길잡이로 활용될길 바란다"며 "민원인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지향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정읍 지향의 명성 재현과 함께 정읍산 지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정읍 지향의 명성 재현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억원을 투입해 우수 품질·무병 종근 보급과 토양 지역증진, 노동력·경쟁비 절감 등을 꾀한다.

또 정읍산 지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향 재배 농가의 GAP 인증을 통한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기술센터는 지난 16일 지향 GAP 인증 예정 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정읍 지향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광욱 KGC 인삼공사 생약사업부 과장이 강사로 나서 올해 구매 방향과 안전한 지향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 강사는 안전한 지향 생산을 위해 타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 살포기의 세척을 철저히 할 것과 비, 과수 등의 인근 타 농작물 재배지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지향 재배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 PLS에 대비해 미등록된 약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 약제도 약량과 횟수, 사용 적기,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잔류 성분 기준이 초과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지향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교육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염원 담아

부안군 - 한국스카우트연맹 - 비글, 관광 스탬프투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함종한), (주)비글(대표 장차국)은 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투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부안군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비글 세 기관은 부안군의 관광활성화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 트래블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부안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며, 트래블 GPS 플랫폼과 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투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지 '부안'을 널리 알리고, 부안의 손꼽히는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게 구성된 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 투어는 잼버리 코스 3개소와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30개소를 연신하여 총 33개 코스로 짜였으며, 스탬프를 받을 때마다 포인트가 누적되고, 누적되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기프 트론(총 25,000원 상당)이 발송된다.

스탬프 투어 미션장소별 인증방법은 GPS, 전자스탬프, 파리카기 코스로 구성되어 스탬프 인증을 재미있고 알차게 꾸며주며, 특히,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 개안동 벚꽃축제, 곰소젓갈발효축제 기간 중에도 스탬프 인증을 운영하여 축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염원을 담아 진행되는 잼버리 코스 3개소에 대한 스탬프 투어 인증을 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잼버리 인증서와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모두 달성(100점)하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다.

스탬프투어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잼버리&부안관광 스탬프투어' 앱을



부안군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비글이 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투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 상태로 스탬프 투어를 즐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부안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부안군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푸짐한 선물도 받아보는 재미를 더한 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 투어 운영에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 부안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산부터 출하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 탄생

고창복분자 선연·황토배기 멜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 복분자와 멜론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하며 '농생명식품 수도'의 면모를 과시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복분자와 멜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복분자 선연은 9년 연속, 고창황토배기 멜론은 3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은 동아닷컴, MBC, 환경닷컴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와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복분자 선연'과 '황토배기 멜론'은 최초 상기도,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전 평가항목에서 평균을 웃돌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고창황토배기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늘한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재배된다. 또 생산부터 출하까지 엄격한 품질관리와 농가들의 정직한 품과 열정이 더해져 명품이 탄생한다.

고창복분자 선연은 많은 향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방지, 육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멜론 역시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으로 흥분을 수놓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통하는 농산물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관계자는 "정정고창에서 생산된 최고품질의 농산물이 명품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없이 기쁘다"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산, 채석강! 서해로 떠나는 힐링소풍'

부안군, 마실축제 투어버스 운행

부안군은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열리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서해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부안마실 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한 5월에 운행하는 마실축제 투어버스는 서해안 최고의 변산해수욕장과, 국가지질명승인 채석강·적벽강을 둘러보고 누에타운을 경유하여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청지박물관까지 아름다운 해안길을 따라 부안군의 관광지를 둘러

보는 마실축제 프로그램이다.

매년 축제때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과 참가자 신청이 넘쳐나 올해도 운영되는 마실축제 투어버스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이고 구수한 해설과 더불어 각각의 코스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되었고, 청지박물관에서는 고려청자에 대한 4D 영상도 체험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사전예약으로 마실축제 홈페이지(www.buanmasil.com)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아동 3,000원(4세이하 무료)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향교가 17일 명륜당 앞 광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선열들의 간절한 뜻 알려나가야"

고창향교서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 개최

고창향교(전교 문계술)가 17일 고창향교 명륜당 앞 광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파리장서 운동이 세계민방에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항일운동이자 유림의 정통성을 온 누리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다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파리장서 낭독, 기념사, 축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100년 전인 1919년 3·1 독립선언 이후 유림은 대표 137명이 서명한 대한제국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문서는 파리강화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에게 전달됐다. 유림과 중국 각 기관, 국내 향교, 국내 주재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교가 독립항쟁 대열에 참여한 파리장서운동이다. 이 운동이 알려지면서 유림 500여명이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유림의 항쟁은 독립군자금 모금운동인 2차 유림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파리장서 운동에 참여했던 137명의 유림 중 호남출신이 10명, 그 중 고석진, 고예진, 고순진, 고제만 4명의 고창출신 유림이 독립청원서에 서명 날인했다.

이들은 면담 최익현 선생을 모시고 의병투쟁에 나섰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독립의군부 활동을 펼치는 등 종생토록 의를 펴안고 조국광복을 위한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이날 기념식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은 의와 예와 충절이 있는 의향이다. 우리 독립선열들의 의, 호국영령들의 간절한 뜻을 기억하고 알려나가야 고창의 의향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며 "100년 전 그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character,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